

롯데카드, 車 할부금융 나홀로 성장... 하반기도 '풀액셀'

자동차 할부 상품 수익 68억
경쟁사 대비 금리 상단 낮춰
작년 동기 대비 142.5% 급증

오토큐레이션 서비스 추가 등
편의성 높여 경쟁력 강화 주력

롯데카드의 자동차 할부금융 실적이 호조를 보이면서 존재감을 나타냈다. 금리상승 여파에 카드사 자동차 할부 상품의 경쟁력이 약화했지만 홀로 반등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1분기 호실적에 힘입어 하반기에도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롯데카드가 자동차 할부 상품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67억8800만원이다. 지난해 동기(27억9900만원) 대비 142.5%(39억8900만원) 급증했다. 카드업계 상위권으로 분류되는 신한카드(30억4000만원)와 KB국민카드(21억8500만원)를 크게 뛰어넘은 수준이다.

지난해부터 롯데카드의 자동차 할부 취급량은 꾸준히 오름세를 기록했다. 올 1분기 자동차 할부금융 자산은 6472억 1900만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다.



롯데카드의 자동차 할부금융 실적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뉴스

연간 77.96%(2835억4000만원) 상승한 수치다. 특히 작년 하반기에는 창립 이래 처음으로 자동차 할부 자산이 5000억 원대에 진입하는 호성적을 거뒀다.

롯데카드는 저금리를 앞세워 자동차 할부 상품 영업을 강화했다. 현재 롯데카드의 '오토할부' 상품은 신차 구매 시 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책정했다. 대출 금리 상단은 연 5.9%다. 경쟁사 대비 금리 상단이 낮다.

최근 카드업계는 자동차 할부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2023년 1

분기를 기점으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자동차 할부 사업 확대 행보에 카드업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다. 지난 1분기 카드사 6곳(신한·삼성·KB국민·롯데·우리·하나카드)의 자동차 할부금융 자산은 9조5224억1800만원으로 전년(10조3723억6600만원) 대비 8499억4800만원 감소했다.

금융권에서는 카드사 자동차 대출 잔액이 줄어든 배경에는 여전히 금리 상승이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달비용이 커진 탓에 금리 경쟁력이 떨어

어졌다는 것. 자동차 할부금융 상품은 시중은행은 물론 인터넷은행, 캐피탈, 저축은행 등이 모두 취급하고 있다. 그간 '자동차 할부 구매는 카드사'란 공식이 성립했던 이유도 카드사가 타 업체 대비 낮은 금리를 앞세웠기 때문이다.

롯데카드는 하반기에도 자동차 할부 영업을 확대할 전망이다. 이달 롯데카드는 자사 플랫폼인 디지털로카에 '오토 큐레이션' 서비스를 추가했다. 차량 구매를 앞둔 소비자에게 신차 구매와 렌터카 요금을 비교할 수 있는 중계 항목을 마련했다. 특히 '환승오토카드할부' 서비스는 신차를 구매하고 할부 기간이 끝나면 차량 반납 후 또다시 신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편의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

롯데카드 관계자는 "신규 고객 유입을 위해 금리 경쟁력을 높였으며 앞으로도 신규 고객 확대를 위해 내부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금리 경쟁력을 유지할 예정이다"라며 "당초 취급 잔액이 타사 대비 낮았던 만큼 기저효과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도 있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보험 브리핑

DB손해보험

네이버와 손잡고 UBI 특약상품 출시

DB손해보험이 안전운전 특약 상품을 출시한다.

◆ 업계 최초 네이버와 UBI 특약 상품 출시

DB손해보험은 지난 1일 업계 최초로 네이버와 내비게이션 기반 안전운전 UBI(Usage-Based Insurance) 특약 상품 출시를 시작으로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해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안전운전 UBI 특약 상품은 네이버 지도의 내비게이션 데이터를 활용한다. 운전 습관을 분석하고 최근 6개월 내 500km 이상 주행 이력이 있고 '운전 분석 페이지' 메뉴에서 안전점수가 71점 이상일 경우 최대 20.8%의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네이버는 자사의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해 운전 데이터를 제공한다. DB손해보험은 고객 맞춤형 보험 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한화생명

ESG 경영성과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한화생명이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

◆ '그린라이프 2030' 중장기 목표

한화생명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성과와 향후 전략방향을 담은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한 그린라이프 2030'을 중장기 전략 목표로 삼는다. 보고서는 '①환경보호와 친환경 경영 내재화' '②사회적 책임 실천과 나눔 경영' '③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중점에 뒀다. 환경경영 성과로는 E-순환거버넌스 자원순환 MOU 체결 및 환경부장관상 수상을 통해 국내 금융권 최초로 전기·전자제품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며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있음을 소개했다.

롯데손해보험

종합암보험 출시 1년 가입건수 10만건 돌파

롯데손해보험이 암보험 가입 10만건을 돌파했다.

◆ 전이·재발 등 암 특성 고려해 고객 수요 충족

롯데손해보험은 지난해 6월부터 판매한 'let:smile 종합암보험(88)'과 'let:smile 종합암보험(88플러스)'의 누적 가입 건수가 10만건을 넘어섰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상품이 최초 출시된 지 12개월만의 성과다. 전이·재발이 쉬운 암의 병리적 특성을 반영한 상품 경쟁력과 함께 암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고객의 수요가 맞아떨어졌다는 평가다. /김주형 기자 gh471@

달라진 분양가 눈높이... 서울 '국평' 12억도 싸다?

장위동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등
입주권 12억 이상에도 무리없이 소화

분양가를 판단하는 눈높이가 달라졌다. 불과 한 두 달 전만 해도 서울 강북에서 '국립평형(전용 84㎡)' 분양가가 12억원을 넘어섰으며 비싸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지만 비슷한 가격에 경기도 성남으로도 청약이 몰리면서다.

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들어서는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는 지난 5일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내고 분양 일정에 돌입했다. 오는 15일 특별공급에 이어 16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는 장위뉴타운(장위정비추진지구) 6구역을 재

발하는 사업이다. 지상 33층, 15개 동으로 총 1637가구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면적 59~84㎡, 718가구다.

입지는 초역세권이다. 지하철 1호선·6호선 석계역 바로 앞에 들어선다. 석계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해 1호선·경의중앙선·경춘선·수인분당선으로 환승할 수 있는 청량리역까지 10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동부간선도로와 내부 순환로 등으로 진출입도 용이하다.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의 3.3㎡(평)당 분양가는 평균 3507만원 인편이다. 지난해 청약에 나섰던 경기도 성남시 '산성역 헤리톤'과 비슷한 수준이다. 당시 최고 105대 1의 경쟁률로 전 주택형이 청약 1순위에 마감됐다.

평형별로는 최고가 기준 전용 59㎡

가 9억6799만원, 전용 84㎡가 12억 1100만원이다. 당초 주변 시세보다 높았지만 최근 서울의 집값이 들쭉거리면서 키맛추기가 이뤄졌다.

내년 3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장위자이 레디언트(장위4구역)'의 입주권이 전용 84㎡가 지난달 12억1000만원에 거래되어 신고가를 기록했다. 장위자이 레디언트의 분양가는 최고가 기준 전용 84㎡가 10억2300만원이었다.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2년 전에 고분양가 논란으로 미분양이 됐던 장위4구역도 지금은 입주권에 웃돈이 붙어 거래가 되고 있다"며 "평당 3500만원선은 성남에서도 무리없이 소화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신축으로는 장위 7구역으로 지

난 2022년 말에 입주한 '꿈의숲 아이파크'의 전용 84㎡가 지난달 11억3000만원에 거래됐고, 장위 5구역을 재개발해 2019년 입주한 '래미안 장위 퍼스트하이'는 전용 84㎡가 10억8000만원에 실거래가 신고됐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는 교통, 교육, 편의, 자연 등 각종 생활 인프라를 두루 갖춰 주거 편의성이 뛰어나고, 주변의 다양한 개발 사업으로 높은 미래가치를 기대할 수 있는 단지"라며 "장위뉴타운에 들어서는 첫 번째 '푸르지오' 브랜드 단지로 단지 안에서 차별화된 커뮤니티, 우수한 상품을 누릴 수 있는 만큼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우리銀, 42개 중견기업 최대 300억 지원

'라이징 리더스 300' 3기 선정
최대 1.0% 금리 우대 등 혜택

우리은행과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는 중견기업 대상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라이징 리더스(Rising Leaders) 300' 3기 42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Rising Leaders 300' 3기 선정은 지난 4월 중순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우리은행의 사전한도 심사 및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4개 기관의 추천 과정을 통해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42개사는 우리은행을 통하여 업체당 최대 300억원, 초년도 기준 최대 1.0%의 금리 우대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금융지원

혜택 외에도 ▲ 수출입금융 솔루션 제공 ▲ ESG대응 컨설팅 지원 ▲ 디지털 전환 컨설팅 등 다양한 비금융 혜택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3기의 경우 최종 선정 대상은 1기(2023년 상반기) 38개사, 2기(2023년 하반기) 34개사에 비해 크게 확대했다. 이는 자금수요 니즈를 바탕으로 한 중견 및 중견 후보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반영한 유의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Rising Leaders 300' 사업으로 성장잠재력을 갖춘 중견 및 중견 후보 기업에 대한 적시성 있는 금융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어르신들이 수협은행이 영업점 내 마련한 무더위 쉼터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Sh수협은행

Sh수협銀, 전국 영업점 무더위 쉼터 마련

Sh수협은행이 무더위에 지친 시민을 위해 휴식 공간을 마련했다.

Sh수협은행은 전국 영업점에 '폭염 사고 예방 무더위 쉼터'를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무더위 쉼터는 오는 9월 27일까지 운영한다.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개방한다. 수협은행 거래고객이 아니더라도 시원한 생수와 냉방용품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김정산 기자